

불교계, 4대강 보존 후보 지지

22일 금강선원 개원... 1만 불자 4대강 생명살림 수록 대재 봉행

여주 여강선원에 이어 4대강 생명살림 기도도량 금강선원(선원장 기둥)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혜) 말사인 공주 영은사 내에 세워진 금강선원은 4월 22일 개원식을 봉행했다.

개원식에는 원혜 스님(마곡사 주지),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화계사 주지), 지관 스님(4대강개발사업저지특별위원장, 김포 용화사 주지), 주경 스님(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대원 스님(전안 사암연합회장), 고은아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운영위원장, 박희인 6·15 공동위 대전본부 집행위원장, 안희정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김혜영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유원일 창조한국당국회의원, 이용길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김영신 사회당 대전시장 비례대표, 김용태 신부(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종교간대화분과위원장), 남재영 목사(대전총남기독교연대 상임대표), 이상덕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대표, 정

민길 교수(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과) 등 각 정계, 종교계,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17일 조계사에서 1만 불자가 한자리에 모여 4대강 사업으로 희생된 듯 생명의 넋을 위로했다.

'4대강 수록대재 추진위원회'는 4월 17일 서울 조계사 일대에서 4대강 생명살림 수록대재를 열고, 온 생명이 공존하는 생명평화를 노래했다. 수록대재는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사찰에서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서울 조계사를 찾았다. 전국 강원 등의 확인스님들도 4대강 사업저지와 희생된 생명을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 '4대강 수록대재 추진위원회'(상인추진위원회) 퇴후, 이하 추진위는 이날 행사에서 스님 1000여 명, 전국 사찰 신도 및 재가 단체, 시민 1만 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불자들은 행동결의문에서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보존과 생명살림에 앞장서는 후보들을 적극 지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오른쪽 끝)과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왼쪽 끝)이 4월 22일 금강선원 개원식 2부 행사인 서예 퍼포먼스에 동참해 4대강 공사 반대 메시지를 적고있다.

지한다. 한강 △4대강에 범당을 개원하고 매주 수록재 봉행으로 4대강 개발 중단 촉구한다. 또 △4대강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각 사찰 등에 걸고 주말·초하루 법회 등을 통해 4대강의 환경파괴 실상을 적극 알리고 서명운동을 펼쳐며 △뚝 생명에 대한 공경심, 공생, 소육자족의 일상 등을 담은 생활 청규를 통해 생명살림에 대한 불자들

의 의지를 모으기로 다짐했다. 불교계는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여강선원, 금강선원에 이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서 영산강 사업 저지를 위한 선원 개원을 준비 중이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출마자들은 불교계를 비롯한 이웃 종교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22일 금강선원 개원식에 참석한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안희정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4대강 예산으로 복지, 교육 재정 등이 축소 중단되고 있는 것은 적법성에도 반하는 일인 만큼 전면 즉각 중단 돼야 한다"며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강선원, 금강선원, 낙동강에서 4대강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웃종교계,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 가톨릭 베네딕도회 수도자들은 지울 스님 안내에 따라 4월 19~22일 낙동강에서 '평화와 치유를 비는 생명의 강 순례'에 나섰다. 19일 충남 공주시 금강곰나루 일대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신부, 수녀, 수사, 신도 등 2000여 명이 '금강 생명평화 미사'를 봉행했다. 이날 미사에는 수경 스님, 원혜 스님, 환성 스님(영평사 주지), 박상래 신부(원로사제회), 조해봉 신부(천주교연대 대표), 문규현 신부(전주 평화동본당 주임) 등이 참석했다.

100자 뉴스

태고종 중무행정 기초자료 모은다

태고종이 종도들의 역량 결집을 위해 중무행정 기초자료 수집·재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4월 2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전국 시도교구 중무행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또, 5월 9일 장충체육관에서 봉행되는 어울림마당과 16일 연등축제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2010영산재' 봉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영산재 봉행에 기여한 전국 시도교구 중무행정 스님들과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 안정사 주지 백우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등 3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동섭 기자

대관음사 동자승 삭발식 및 소재의식 봉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4월 21일 대구 남구 참좋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10명의 '동자승 삭발식과 수계식'과 대웅전 백의 관세음보살 소재의식을 봉행했다. 우학 스님은 "어린이들이 불교를 보다 쉽고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불자들에게 각자 현재 내가 무얼 하고 있는지 등을 실천하고 생각하는 봉축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태고종 대구 관암사 창건 50주년 불사 회향

태고종 대구 관암사는 4월 21일 창건 50주년을 기념해 대웅전 관음전 칠성각 낙성식과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종정 혜초 스님과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관암사는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벽암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2004년부터 20여 역원을 들여 대웅전 중창을 비롯한 가람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해인사·국가기록원 기록유산 보존 협정서 체결

합천 해인사와 국가기록원은 4월 22일 '기록유산 보존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에 따라 해인사는 6월 1일 국가기록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0 국제기록문화전람회'에 대장경 원본을 전시하며, 국가기록원은 '2010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에 조선왕조실록을 전시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단종비 정순왕후 허경 스님 추모다례 봉행

서울 청룡사(주지 진우)는 4월 24일 '허경 스님(정순왕후)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다. 종로구청이 진행한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 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에는 석문의법연구회 선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자) 등이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운동장 복합교육시설로 변모

동국대 서울캠퍼스 운동장과 수영장이 복합교육시설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4월 22일 부지 2만4000여 m에 지상 공원 및 지하 교육 시설이 건립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청하이 지진 속 불교전과 문성공주묘 무사

중국 청하이성 강진에도 당나라 때 티베트에 불교를 전파한 문성공주의 묘가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진으로 위수 일대 역사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와중에도 진앙지에서 불과 20km 떨어진 문성공주묘가 무사하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지울 스님, 국토부장관 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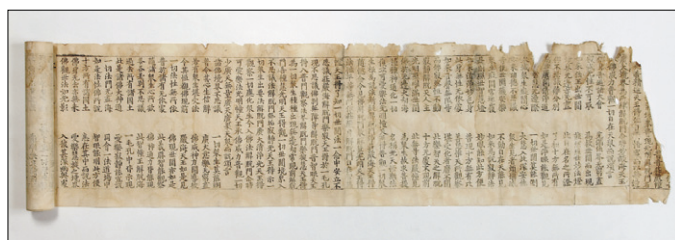
지울 스님(사진)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4월 16일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고소장은 4대강사업 허위 홍보 유포 관련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4대강 홍보자료를 거짓 유포한다는 내용이다. 낙동강과 4대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인터넷 다음 카페(cafe.daum.net/chorok9)에 지울 스님은 국토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증거자료(영상, 사진), 고소장(피고소인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을 공개했다. 지울 스님은 고소장에 "정부에서 홍보하는 흡입식 공법을 하고 있는 곳은 10곳 미만에 불

과하며 대부분 지역에는 직접 준설방식"이라며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또 지울 스님은 "오타 방지막 역시 대부분 끊어져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으며, 가물막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오타 방지막 밖으로 흘러보내는 곳도 있었다. 준설도 역시 오염물질의 제거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울 스님은 정종환 장관에게 4월 9일 천성산 문제와 고속철도 운영실태의 진위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냈다. 정종환 장관은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룡농소송)을 할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상연 기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4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 자비도량참법집해 등도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등 문화재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보물들은 △보물 제1650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보물 제1649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1651호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 △보물 제1652호 통영측우대(統營側雨臺)이다. 특히 이번 지정된 4건의 문화재 중 주목할 만한 보물은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이다. 전적은 모두 21점으로, 9~13세기에 걸쳐 사성(寫成) 또는 간행(刊行)된 것이다. <화엄경>은 진본(眞本) 60권, 주본(周本) 80권, 정원본(貞元本) 40권 3본이 고루 들어 있다.



개운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화엄경> 진본.

전적들 중 9~10세기 초에 만들어진 고사경(古寫經)들은 신라사경의 형식과 동일한 26행 17자본의 행자수를 이루고 있으며, 고판경(古板經)의 형식 전적의 경우도 24행 17자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전적들은 시기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매우 희귀해 역사적 가치와 함께 서지학, 서예, 화엄경 판본 연구 및 불교사 연구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려후기 대표되는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이 매우 드문 현실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는 18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대표적 화사인 의겸이 제작한 불화로, 대형의 3폭 삼불도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은정 기자

광고 따로 올렸습니다.